

서부권

진도 관매도는 '음악의 섬'

숲길 복원, 전통악기·풍물놀이 조형물 설치 명품마을 조성

진도군 관매도가 '음악의 섬'으로 조성되는 등 명품 마을로 다시 태어난다. 진도군은 최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와 명품마을을 조성...

섬으로 지정하고 관매도 해수욕장 및 숲길 복원·방아섬 및 하늘다리 탐방로 조성 등을 완료한 바 있다. 또 옛 숲길복원과 전통악기 및 풍물놀이 조형물 설치·야생화 단지 조성사업 등 관광 자원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적 협조와 사업비 유치 공동 노력 등을 통해 관매도의 수려한 자연 생태계와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 관매도의 우수한 자연 생태를 주민의 경제적 소득으로 연계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참여형 생태관광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여름밤 공연 보며 무더위 잊으세요

해남 땅끝 문화축제

해남 군민광장에 가면 무더위를 잊을 수 있는 즐거움이 매일 밤 이어진다. 해남군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매일 밤 8시에 해남 군민광장 특설무대에서 '2010 땅끝 한여름밤의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타악그룹 KATA와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비보이 엠비크루가 함께 여는 공연을 시작으로 악단 경기 도립예술단의 팝스앙상블의 환상적인 연주가 이어진다. 또 전남 도립국악단의 타고 국악공연, 개그맨 이용식의 사회로 가수 박강성·전영록·김혜연을 초청해 가요 콘서트를 열며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 '포화속으로'도 상영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무더위에 지친 군민에게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고 휴가철 해남에 온 관광객에게 낭만이 넘치는 추억거리를 제공하고자 축제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합동에서 시행한 '2010년 지방문화회관 기획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해남문화예술회관 기획작품이 선정돼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열린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살림 가득이나 어려운데..."

함평군 '황금박쥐' 이어 순금 조형물 또 제작... 주민들 "예산낭비"

함평군이 이어 순금 황금박쥐 조형물 <사진>에 이어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이 또 다른 금 조형물을 제작, 논란이 일고 있다. 함평군은 지난 2008년 4월 홍익대 디자인공학연구소에 의뢰해 제작한 황금박쥐 조형물을 일반에 공개해 화제가 됐다. 순으로 제작한 가로 1.5m·높이 2.18m의 원안에 박쥐 5마리를 배치했으며 순금 162kg이 사용됐다.

그러나 군은 최근 또다시 21.5kg 상당의 금(21kg)을 들여 황금박쥐 조형물과 연계해 일명 '오복포란'(五福抱卵)을 제작한 후 황금박쥐 전시관 내에 전시할 계획이어서 예산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오복포란'재료는 군이 지난 2008년 순금 황금박쥐 조형물을 제작하고 남은 금·은괴들로 금 21.5kg·은 6.67kg 등 시가 10억여원 상당에 이른다. 군은 금·은괴를 지난 2008년 4월부터 2년간 함평군 금고인 농업 함평군 지부에 보관하다 지난 3월말께 홍익대 디자인공학연구소와 계약을 체결, 6600여만원 예산을 들여 '오복포란'을 제작한 후 현재 농업 함평군지부 금고에 보관중이다.



화재급의 명물로 탄생시키자는 취지로 조형물을 만들게 됐다"며 "탐방객들이 '오복포란'을 직접 만지면서 느낄 수 있도록 해 함평 황금박쥐의 가치를 높이고 생태환경 보전의 교육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제작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황금박쥐 생태관 조성비용으로 18억원, 황금박쥐 조형물 제작비(금값 포함)로 30억5000만원 등을 투입했고, 이번엔 또다시 6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복포란' 조형물을 제작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영광 갯벌마라톤축제 '제2회 영광 갯벌마라톤축제'가 최근 영광군 연산면 두우리 백비원 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렸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함평군이 지난 2005년 1월 조형물 제작을 위해 금을 매입한 당시 1돈(3.75g)이 6만2475원이었으나, 현재는 매입가 기준 순금(1돈) 시세가 16만 5500원으로 2.5배나 훌쩍 뛰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금값이 올라 황금박쥐 조형물 가치는 상승한 반면에 수억원을 들여 건축한 황금박쥐 생태관 입장 수입은 운영관리비에도 못 미치는 등 현저하게 저조해 일부 군민 사이에서는 순금 조형물을 팔아 어려운 군 재정에 보태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군민 김모씨는 "많은 예산을 들여 건축한 황금박쥐전시관이 입장수입이 저조해 황금박쥐 조형물을 팔자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군이 또다시 10억여원 상당의 금괴와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오복포란'을 제작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다"며 "어려운 시기에 꼭 순금 조형물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함평군 관계자는 "황금박쥐 조형물 제작 당시에는 예산 낭비에 비판적인 여론도 많았지만 문

신안 도초도에 천일염 종합처리장

연산 1만 5000t 처리 규모...청정원·생산자 82명 공동 설립

신안군 도초도에 천일염 산지 처리장(사진)이 세워졌다. 대산(청정원)은 3일 신안군 도초면 천일염 생산자 82명과 공동으로 설립한 '신안 천일염주식회사'의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준공식을 가졌다. 박우량 군수는 "천일염 생산지에 저장·선별·가공·유통 등을 위한 종합처리장 준공으로 신안 천일염이 국내 시장은 물론 세계 천일염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45억원을 들여 건립한 천일염 산지 종합처리장은 현지 천일염 생산자와 식품기업이 주식회사를 설립해 기업화하고 있다. 신안천일염(주)은 연간 처리능력은 1만 5000t이지만 앞으로 3



년 이내에 198억원을 투자해 5만t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초면은 지난해 5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깨끗하고 질 좋은 갯벌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염화물 천일염 생산의 최적지로 꼽히는 지역이다. 이번 산지종합처리장 준공을 통해 앞으로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건립을 계기로 천일염의 고급화와 함께 안정적인 판로확보는 물론 미국·일본·유럽·중국 등 새로운 국제시장을 확보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민기자 wncho@

완도 '문화 예술의 전당' 내일 문열어

완도의 문화 중심지로 랜드마크 역할을 할 '문화 예술의 전당'이 5일 문을 연다. 3일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읍의 관내면 가용리 일대 8422㎡ 부지에 전체면적 7289㎡ 규모로 건립된 문화 예술의 전당은 사업 제안자인 완도문화사랑당이 154억원을 들여 2년간의 공사 끝에 지난 6월 말 완공했다. 문화 예술의 전당은 500석 규모의 공연동을 비롯해 문화동·야외 공연장 등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됐다. 공연동에서는 오페라·뮤지컬·관현악 연주·극 등 다양하고 격조 높

은 예술공연을 할 수 있도록 최첨단 무대장치와 음향·조명장치 등을 갖췄다. 공연동 맞은 편에 3층 규모로 지어진 문화동은 각종 문화 창작 및 취미 활동과 실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완도군은 개관 기념으로 오는 5일 중간과 야간 2차례에 걸쳐 서울 팝스 오케스트라와 인순이·조영남 등 인기 가수·명창 박애리와 팡패라 가수가 참여하는 고전 음악과 대중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을 마련한다. /서부취재본부=정은호기자 ejchung@

새얼굴 "천일염 육성·조선타운 조성 혼신"

문 동식 신안군부군수



"희망이 샘솟는 신안군 비전 실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문동식(52) 신안 부군수는 "천일염 산업 성장과 민자유치를 통한 조선타운 등 각종 투자유치, 작은 축제를 통한 신안의 우수 농수산물에 대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조 등을 적극 추진해 나겠다"고 밝혔다. 해남 출신인 문 부군수는 광주 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79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전남도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장·동부출장소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현숙씨와 사이에 1남1녀가 있으며 취미는 그림감상·독서. /서부취재본부=조완민기자 wncho@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광주광역시 남동구 대인동 삼일빌딩)

탑공인중개사

광천동신축상가임대

Table with 3 columns: 층, 면적, 권장업종, 비고. Includes details for 1, 2, 3, 4 floors of a new building in Kwangcheon-dong.

광천동 대림 e편한세상(구 숭원대학 정문) 신축상가로서 대림아파트 1096세대와 주변 기아자동차/주변세대 약 3,000세대가 활동하며 엘리베이터 설치와 양면도로 및 양쪽 출입가능

신세계 및 테미빌 광장 내 매주 1회 공연용으로 유동인구 급증!!

- 광천터미널 내 상가임대 ●
■ 공용면적 : 96.36㎡ (29.15평)
■ 전용면적 : 66㎡ (20평)
■ 보증금/월세 : 70,000,000 / 2,300,000
■ 비전 있음

● 임대문의 ● 대림 124동 후문 입구 ☎(062) 368-0789 / H.P 010-3602-4840

아담공인중개사

서광주역부근 자연녹지

- 서구 박전동 서광주역 인근 6,561㎡(1,985평), 3.3㎡당 52만원, 자동차권 리모델링 고층아파트
■ 합평 손을 바다가 전원주택(교환가능)
● 합평군 손불면 월천리 안압제수목장 인근 대지 및 전 14,370㎡(4,347평) 연면적 178㎡(53평), 2층, 교환가능함, 조망권 양호, 앞에 서해바다가 펼쳐있음, 아파트와 교환가능 매대가 3억
■ 상촌동 내대지
● 서구 생촌동 호남대 건너편 구정공관사 1,845㎡(558평) 제1종일반주거지역, 10m진입로 매대가 3.3㎡당 160만원, 종교시설, 요양원지.
■ 혼남대(서해)부근 자연녹지
● 광산구 선암동 호남대앞 3,458㎡ (1,046평)3.3㎡당 110만원
■ 자연녹지지역 개발영역으로 조망양호
■ 첨단 보훈병원앞 자연녹지
● 광산구 선암동 보훈병원앞 9,722㎡(2,941평) 3.3㎡당 60만원, 자연녹지 지역, 분할가능, 전원주택, 요양원시설, 기타.
■ 무등산 전원주택지
● 북구 화양동 대지433㎡(131평), 전.입.1,994㎡(603평) 구주락2동, 매대가 1억9000만원, 조망 경관양호

건물구현 (병원, 요양원, 리모델링) 광주시내 전지역, 연면적1,000평이상.

☎062-233-2222 / 010-3616-8698

GG경제컨설팅(주)

Table with multiple columns: 지역, 소재지, 대지/건물면적, 권장가, 최가, 비교. Lists various real estate listing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Gwangju, Jeonnam, and Jeonbuk.

공인중개사·감영희

Table with multiple columns: 지역, 소재지, 면적/평, 권장가, 최가. Lists real estate listings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Gongin Jeonnam.

● 위치:법원입찰장 건너편 ● 권리분석·현장답사·입찰대행·낙찰(진금부족시 최저금리 대출알선)·프리모드(이사)